

@ - interview

Mick Dunford

믹 던포드 (M i c k D u n f o r d)

믹 던포드는 현재 영국 서섹스대학교 유럽학부 경제지리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00년에 Academy of Learned Societies for the Social Science(AcSS)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6~2002년까지 파비아대학교, 툴루즈사회과학대학교, 파리제1대학교 등 유럽 및 남미 대학교의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의 학문적 궤적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1980년대 조 절이론적 접근방법론을 경제지리학에 도입하였으며, 유럽통합이 가속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도시 및 지역발전에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기여도가 높다.

대담 | 정성훈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주제는 '세계적 - 지방적 상호작용: 한국기업의 대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다. 200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최근 주요 연구프로젝트로는 '지역간 국제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유럽지역정책 연구,' 'R&D 분야 외국인 투자의 기술이전효과 제고방안' 등이 있다.

믹 던포드 : 유럽연합의 도시 및 지역발전

대담, 정리 | 정성훈(한국산업기술재단 책임연구원)



정성훈

▶ 정성훈(이하 '정')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토연구원에서 기획한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교수님과 국토연구원 가족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993년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토연구원에서 특강을 하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가상공간'을 통해 최근 학문적 관심사 및 근황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수님의 학문적 관심사 중 하나인 EU(유럽연합)의 도시 및 지역발전 현황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지역불균등발전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EU 지역불균등발전의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들을 EU 구조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믹 던포드(이하 '던포드') : 경제발전의 상대성 및 부와 소득 증대에 따른 분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난 수년 동안 EU가 경험하고 있는 증가된 통합의 결과물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 균등하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 다양한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기존의 여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EU 회원국들간 경제발전 수준에 있어서 불평등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EU는 통합이 증대됨에 따라 (회원국들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격차완화클럽'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회원국들간 격차완화는 대부분 회원국 내부에서 지리적 -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 증가현상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Mick Dunfor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 **Sung-Hoon Jong('Jung')**: *Thank you for your response to this electronic-interview organized by Planning & Policy(one of the KRIHS journals). 10 years have passed since you came to Korea in 1993 and gave a special lecture at KRIHS(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On this occasion the aim of this interview is to let you comment on your recent academic interests through cyberspace. Let me start with a question o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hereafter EU) that is one of your main academic interests. According to a report on EU region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ere has been progressive regional convergence in the EU since the early 1990s. With reference to the impact of EU structural policies,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recent trends and tendencies of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U and its policy approaches to reduce wider socioeconomic gaps between regions?*

►► **Mick Dunford('Dunford')**: *Analysis showed that in the recent past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EU has gone hand in hand with a range of different trends at different scales in rela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in the distribution of increases in wealth and income. Geographically, disparities in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existing EU Member States have diminished since the mid-1980s, enabling some to argue that the EU is a strong convergence club at least in times of increasing integration. Member State convergence coexists however in most EU Member states with increasing geographical and social inequalities.*



Mick Dunford



이와 같은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 지역간 격차완화를 위한 EU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볼 때, 구조기금 프로그램은 자원들을 이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이전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1994~1999년 동안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의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GDP에서 구조기금의 비중이 각기 3.3%(포르투갈), 3.5%(그리스), 2.4%(아일랜드)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기금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계량적 - 경제적 결과 및 고려사항들의 범위를 초월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가된 가치들은 지역발전전략 수립방식 및 공공행정의 변형과 현대화 전략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 : 교수님은 EU '경제 및 사회 응집력'에 관한 1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사회응집력정책이 개인간의 사회적 격차로 인해 야기된 공간적 불평등성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EU 사회정책은 지역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게 되므로, 사회적 격차가 지역 격차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지요.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이 정책에 대해 (1) 'cohesion'의 개념 및 (2) 정책적 지향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던포드 : 1차 보고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은 국가, 지역 및 사회 응집력간 특성들을 구별짓는 일이었습니다. EU 조약은 '응집력'을 지역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U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EU는 경제적 -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체의 실행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특히, EU는 다양한 지역들의 발전성과 낙후지역군(자체 발전이 뒤처진 지역, 도서지역, 농촌지역 등)의 낙후성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EU 조약 158조).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사회적 응집력을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맥락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적 공평성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지방의 급속한 쇠퇴가 사회간접자본의 낭비를 이끌 수 있고, 공동체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발전의 과도한 집중은 높은 사회 및 환경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지침은 지역간 불평등성을 줄여나가는 발전의 지리학을 만드는 데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공평성도 사회적 응집력 및 정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사회적 공평성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와 소득이 개인과 가계를 통해 분배되는 방식과 세금과 정부지출을 통해 재분배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다수의 경우 낙후지역에서 구조기금 지출의 수혜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층이라는 사실이 명백할지라도, EU의 구조 및 응집력 정책들은 사회응집력에 긍정



The Structural Funds represent an important transfer of resources. The transfers involved are to certain regions and to certain countries. In 1994-9 for Portugal, Greece, 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Structural Funds constituted 3.3, 3.5 and 2.4 percent, respectively, of their national GDP. The importance of the Structural Funds goes however beyond these quantitativ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Structural Funds have had a very important political impact: in this field their added value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transform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 **Jung:** *You were deeply involved in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1st report on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the EU. Personally speaking, the policy on the social cohesion is concerned with spatial inequality which is caused by the social gap between individuals. At this point, EU social policy is directly geared into its regional policy. Could you please introduce briefly the EU cohesion policy within the contexts of (1)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and (2) EU policy frameworks on cohesion?*

►► **Dunford:** In the work for the first cohesion report we drew distinctions between national (Member State), regional and social cohesion. The EU Treaties define cohesion in territorial terms : ‘In order to promote its overall harmonious development, the Community shall develop and pursue its actions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its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particular, the Community shall aim at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the levels of development of the various regions and the backwardness of the least favoured regions or islands, including rural areas’ (Article 158 of the EU Treaty, formerly Article 130a). In the work for the cohesion report we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distributional equity.

In my view territorial evenness is important for two reasons. The first is the fact that a rapid decline of localities can lead to a waste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social life of the communities it breaks up. The second is the fact that an over-concentration of development can have high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There are therefore grounds for seeking to shape the geography of development in ways that reduce territorial inequalities. In addition, Social equity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social cohesion and social justice. What social equity depends upon is the ways in which wealth and income are distributed among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and redistributed through taxa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In conclusion, EU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can in principle have positive impacts on social cohesion defined in this more meaningful sense, though in many cases it is clear that the people who benefit initially from Structural Fund expenditures in less developed areas are economically well-off.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 : 최근 교수님께서 EU 접경지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RIVES - MANCHE(영국 - 프랑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199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지역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매우 독특한 것이라 평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국 유학시절, 저와 저희 가족은 매년 봄 우리 동네인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리는 프랑스 디엡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왕복 1파운드에 불과한 엄청난 가격으로 프랑스 디엡까지 배를 타고 가서 당시 영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던 프랑스의 맥주, 와인 및 담배 등을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한국 독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EU 접경지역 프로그램은 현재 접경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남북한, 중국, 일본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접경지역 프로그램들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아울러 RIVES - MAMCHE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던포드 : EU 구조정책의 다른 부분처럼, 이 프로그램도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접경지역 프로그램은 EU 자체에 의해서 선택된 공동체구상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EU 구조기금 프로그램의 각 개혁국면(1988 - 1993, 1994 - 1999와 2000 - 2006)마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접경지역 프로그램들은 내륙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 프랑스 접경지역은 해양접경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접경지역간 관계들의 발전을 보다 어렵게 만들기는 합니다. RIVES MANCHE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영국 뉴헤븐과 프랑스 디엡간 페리 노선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진척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프랑스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영국 뉴헤븐 항구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 지방정부가 자체 관할구역 외부의 자산을 최초로 획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각 관련 지방정부들은 상호결합된 구조에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며, 서로 학습할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최근에는 단일관리체계 및 재정체계에 의해 이 프로그램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 정 : 이제는 유럽통합의 확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EU는 1970년대 초반 이후 통합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했고,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웨덴이 가입함에 따라, EU는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는 발틱



► **Jung:** *Recently, you have been involved in the Rives-Manche programme (UK-France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is one of the EU INTERREG II programmes. According to the annual report (1999) by you, it is distinctive in its attempt to bring together areas geographically separated by the sea: the county of East Sussex in England and the départements of Seine-Maritime and Somme in France. Personally, I remembered that my family and I really enjoyed a Dieppe (a town in the département of Seine-Maritime, France) Market in Brighton (that is in the county of East Sussex, UK) every Spring when we lived in Brighton. In the winter, we had gone to Dieppe, France for a very cheap fare (£1 for a return ferry crossing) to buy beer, wine and cigarettes than far cheaper than that found in the UK. For this reason, Koreans might be interested in this programme. Furthermore, the EU INTERREG programmes are good examples for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Japan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planning to increase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Could you please evaluate the EU INTERREG programmes in general, and the Rives-Manche programme in particular?*

►► **Dunford:** As with other parts of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EU, evaluation is difficult. INTERREG is a Community Initiative selected by the EU itself. INTERREG has figured in each of the phases of the reformed Structural Fund programmes (1988-93, 1994-9 and 2000-06). Most INTERREG programmes cover land borders. The Franco-British border is a sea border, making the development of strictly cross-border relationships more difficult. In the case of the Rives Manche programme the justification lay in the existence of a ferry route from Newhaven to Dieppe. While I cannot explain the story in detail, the latest phase in the story of this sea-crossing is that a French local authority (the département of Seine Maritime) has actually purchased the port of Newhaven. I think it is the first time a French local authority has acquired an asset outside of its own jurisdiction. INTERREG is also important in that it gets local administrations to work together in joint structures, to learn from each other, to work in ways that are more harmonised and even in the latest phase of INTERREG to work through a single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Rives Manche programme the French region of Haute Normandie) and a single financial authority.

► **Jung:** *Now then, let us talk about the European enlargement. The EU has completed several enlargements since the early 1970s. In 1973, the UK, Denmark and Ireland joined the EU. Greece joined in 1981, as did Spain and Portugal in 1986. When Austria, Finland and Sweden joined the EU in 1995, the EU grew to comprise 15 Member States. In the next phase of enlargement starting in 2004 Poland, Hungary,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Slovenia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ECE) will join along with the Baltic States, Cyprus and*



국가들, 키프러스, 몰타 등과 함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동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할 예정이고, 터키의 경우 현재 후보회원국으로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EU의 주된 확대 방향은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지역에 대한 EU의 정책적 접근은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펀드 배분 등 주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EU는 해당 후보 국가들의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EU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EU - 동유럽간 및 EU - 지중해 연안 국가들간 사회경제적 격차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이와 같은 EU의 신자유주의적인 접근방법만이 EU 확대과정의 유일한 대안입니까?

▶ 던포드 : 동유럽 및 지중해로의 EU 확대 프로그램은 EU 회원국 및 이 국가들의 법적 - 행정적 구조들간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일부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대체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확대과정은 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이 EU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한다는 과정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당신이 주장한 이와 같은 자유화 과정이 불균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장과는 반대로 기술이전과 같은 동력도 동시에 작동할 것입니다. 동유럽의 경우,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우선 생산액과 소득의 극적인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이들은 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불균등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합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유럽차원의 분업에 있어서 동유럽의 기능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새로운 중심 - 주변구조가 창출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U확대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해 본다면, EU가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에서 사회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EU가 기업주도형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정 : 다음 질문들은 교수님의 이론적 관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1970년대 초기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과 정치경제공간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전환하시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자본주의 조절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 주로 관심을 두고 경제지리학, 도시 및 지역발전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에서 조절이론으로 학문적 관점을 전환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또한 이와 당신의 저작인 'The Arena of Capital(1984; Diane Perrons와 공저)' 은 조절이론과 경제지리학을 연계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 던포드 : 조절이론은 마르크스주의나 신케인지언/칼레키언 사상에 뿌리를 둔 중범위 이론입니다.



Malta, while other ECE countries will follow, and Turkey has applied for membership. As a result the main direction of future European enlargement will be towards central and eastern Europe(CEE) and the Mediterranean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newly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the free marketization. Nevertheless, the EUs policy approaches to these two macro regions seems to be focused upon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funds for improving their infrastructure. Through this financial support, the EU envisages the vitalization of their free market economies. I think that this approach is neo-liberal. In my view, this approach will give rise to enlarged socioeconomic gaps between the EU, CEE and the Mediterranean. What do you think about my viewpoint? Is a neo-liberal approach of this kind the only alternative in the process of the European enlargement?

►► **Dunford:** For the countries of ECE and the Mediterranean EU enlargement implies an alignment of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 with those of the EU. In some cases alignment would be strongly positive. At the same time enlargement also implies an opening up of their markets to EU enterprises: for these economies there is a risk of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degree of external control of their economic life and of a large net transfer of wealth created in them to the countries from which investment originates(in contrast to the nationally-directed modernization efforts of many East Asian economies). I agree with you that this liberalization will engender unequalising forces, though at the same time there will also be forces(some technology transfer for example) that will work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e case of ECE market transition led first to dramatic declines in output and income. More recently output and income have increased, but so has inequality. Neo-liberal integration will contribute to a furtherance of these trends, with ECE economies occupying functional roles in a Europe-wide division of labour that will create new centre-periphery structures. In conclusion, within the EU the risk of enlargement is that it will slow the transformation of the EU from an economic community into a social community. Indeed, ensuring that the EU remains a business-driven market state is precisely one of the aims of some of the political forces.

► **Jung:** *The following questions are related to your theoretical perspectives. In the early 1970s you we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political economy approaches and spatial development. Since the mid-1970s you have turned your theoretical gaze towards theories of regulation while making your regulationist approach more sophisticated and seeking to connect theoretical and the empirical material in the fields of economic geography and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Were there any reasons for this theoretical turning point? In addition can you explain the implications of your book(Written with*



비록 제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통과 칼레키언 접근방법의 일부 측면들을 통합시키고자 했을지라도, 조절이론에서 제 이론적 지위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조절이론의 초기 출발점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조절양식)간의 모순입니다. 보다 최근에 저는 (최근 야기된 기술적 진보와 경제성장의 출현으로 인한) 경제적 진보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통에서 명시된) 사회 응집력/분배 정의간 모순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지한 바처럼, 나는 최근에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에서 나오는 많은 분석범주들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도, 환원론에 대한 비난으로 인하여 학문적 담론이 부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자유주의 급상승과 더불어 나타난 상당한 역사적 반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의 붕괴입니다.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심각하게 존재해 왔을지라도 말입니다.

저와 Perrons의 공저인 'The Arena of Capital' 은 몇 가지 생각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들이 선택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않을지라도, 인간은 역사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수단간 야기되는 갈등의 맥락에서 구축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불균등 발전은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장소에 있는 행위자들간 다양한 조정국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을 보다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활용하고자 저와 Perrons는 조절이론을 사용했고, 아울러 자본주의에 대한 시기적 구분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 전통의 일반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특정시간에 구조화되는 특정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범위적인(매개적인) 범주들에 대한 분석 및 특정 장소/시간에 얽힌 특수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 정 : 교수님은 'The Arena of Capital' (1984) 이후 현재까지 조절이론적 맥락에서 교수님의 이론적 범위를 영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로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조절이론은 유럽통합과 도시 및 지역발전을 고찰하는 데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던포드 : 몇 년 전 저는 Brian Graham이 편집한 'Modern Europe' 이라는 책에 'Economies in Space and Times : Economic Geographie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and Historical Geographies of Modernization' 이라는 논문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유럽발전분석의 맥락에서 'The Arena of Capital' 에서 발전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유럽의 공간발전에 대한 비교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지니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의 제국면에 대한



Diane Perrons), The Arena of Capital(1984) for connecting the regulationist approach with contemporary economic geography?

►► **Dunford:** Theories of regulation are middle-level theories with theoretical roots either in Marxism or in the neo - Keynesian/Kaleckian thought. My own position was and is grounded in the Marxist tradition, although I would integrate into it a number of aspects of the Kaleckian approach. The very starting point of regulation theory wa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forces and relations(mode of regulation) of production. More recently, I have also identified as a starting point a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progress(as technical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have occurred in the recent past) and social cohesion/distributive justice which can also be identified with the Marxist tradition. What you are correct in perceiving is that I have not recently made much EXPLICIT use of categories from Marxist political economy. Explaining why is difficult. Clearly academic discourse shifted in part because of accusations of reductionism. A second reason was the remarkable historical reversal that occurred with the ascent of neo-liberalism. A third reason is probably the collapse of Communism even though it had been so severely criticised from within the Western Marxist tradition.

As for the *Arena of Capital*, all I would say is that it was centred on several sets of ideas. The first were the ideas that people make history but not in circumstances of their own choosing, that this history can be construed in terms of the unfolding of conflicts between the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and that uneven development reflects the differential adjustment of people in places to the these unfolding conflicts. To give these general ideas more specific historical content, regulation theory was used, as it offered an initial periodization of capitalism itself. To understand capitalism the generic concepts of the political economy tradition are essential, yet understanding particular places at particular times also requires the integration into the analysis of a range of intermediate categories(derived from regulationist perspectives) and finally of factors specific to particular places and times.

► **Jung:** *Since The Arena of Capital (1984), you have extended the scope of your work from the UK Europe always within the context of theories of regulation. Please could you tell us about any implications of your regulationist approach t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an integration and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 **Dunford:** A few years ago I wrote a book chapter(Economies in space and time : economic geographie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and historical geographies of modernization in Brian Graham's *Modern*



인식이 포함된) 누적인과적/역사적인 접근방법이 지니는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영국 근대화 과정의 경로가 지니는 특수성에 대하여 'The Arena of Capital'에서 고려했던 의문점들에 대한 고민을 유럽차원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조절이론적 접근방법들에 관한 한, 저는 이 접근방법들을 특수한 장소와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시적 발전을 중간/거시적 차원의 과정/경향들과 연결짓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절이론적 접근방법들은 자본축적의 궤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개적인 개념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니 이쁩니다. 교수님의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던포드 : 저는 현재 두 권의 책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차원의 지역적 분업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국가 및 지역발전에 대해 비교공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수행능력과 지역경제의 변화하는 양상들(특히, 폭넓은 가치사슬의 견지에서 다양한 지역들 내 기업들의 변화하는 지위)을 연결짓는 최근 저의 연구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작업 이후에는 이 생각들을 서유럽의 다양한 국가들(특히, 프랑스와 아일랜드)과 동유럽의 국가들(아마도, 러시아)로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개진할 것이며, 현대 공간경제상 나타나고 있는 균형/불균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마르크스주의의 개념들이 기여하는 바를 재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Mick Dunford의 주요저서 및 논문

Dunford, M. and Perrons, D., (1983) *The arena of capital*,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Dunford, M., (1988) *Capital, the state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Pion
Dunford, M. and Benko, G. (eds.), (1991)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new industrial spaces*, London: Belhaven
Dunford, M. and Kalkas, G. (eds.), (1992)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the global-local interplay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London: Belhaven
Dunford, M. and Hudson, R., (1996) *Successful European regions, Northern Ireland learning from others*, Belfast: Northern Ireland Economic Council
Dunford, M., (2000) 'Catching up or falling behind?: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traject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n enlarged Europe', *Economic Geography*, 169-95
Dunford, M., (2000) 'Regional disparities in the EU through the lens of official statistics', in Petrakos, G., Maier, G. and Gorzelak, G. (eds) *Integration and transi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69-99
Dunford, M., Louri, H., and Rosenstock, M., (2001) 'Competition, competitiveness and enterprise policies', in Hall, R., Smith, A. and Tsoukalis, L. (eds) *Competitiveness and cohesion in EU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9-46



Europe). It involved an approach developed in the Arena of Capital to the analysis of European development. What it demonstrates is the importance not just of general mechanisms but of cumulative causation and of historical approaches (which include the recognition of phases of historical development) to understanding comparative spatial development in Europe. In doing so, it sought to push forward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considered in the Arena of Capital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British pathway to modernization.

As far as regulation approaches are concerned, I also see them as part of an attempt to develop theories about places that are ultimately unique, and as part of an attempt to link micro-level developments with meso - level and macro-level processes/trends. To my mind regulationist approaches provide a set of intermediate concepts that help explain the trajectories of accumulation.

► **Jung:** *It is shame to ask you the final questions.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current research projects and future research plans. Thank you very much.*

►► **Dunford:** As for my own plans I am at present working on two books: one is on the remaking of the territorial division of labour in Europe, and the other is on comparative development in Italy. The two volumes draw on a recent research project which sought to link regional performance with the changing profile of regional economies, and in particular with the changing position of enterprises in different regions in wider value chains. In the next few years I hope to extend this work dealing with a number of other countries in western (including in particular France and Ireland) and Eastern Europe (including perhaps Russia), developing at the same time a critique of market fundamentalism and re-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Marxist conceptions of capitalist dynamics to the study of the interplay of equalising and unequalising forces in the contemporary space economy.